

멀리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서 그저 까만 점처럼 보이는 배를 봤다네. 배를 지켜보느라 반나절을 거기 꼬박 머물렀지. 하지만 아직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배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어. 수평선의 해무 속으로 배가 자취를 감췄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노상 바람에 두들겨 맞기만 하는 그곳에 풀이 남아 있었다네. 그곳의 바람은 야자나무와 타타마카나무 우듬지를 뒤흔든다네. 두 나무가 둔탁하게 부딪히며 중얼거리듯 우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를 닮아 깊은 애수를 불러일으키곤 하지. 나는 거기서 풀을 찾았다네. 바위에 머리를 기댄 채, 두 눈을 땅에 붙박이고 있었어. 해 뜰 무렵부터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지.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와 가족을 다시 보게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네. 어쨌든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는 일단 라 투르 부인을 다시 보자마자 그녀가 자길 속였다며 야멸스레 따지고 들었어. 라 투르 부인은 우릴 보며 말하길, 새벽 세 시쯤 바람이 불어서 배가 출항 준비를 했고, 총독이 그의 참모진 일부와 선교사를 뒤에 달고 와서는 비르지니를 찾아 가마에 태워가려고 했다며, 물론 자기가 나름 이유를 내세우며 눈물을 흘리고, 마르그리트도 덩달아 눈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무리는 일제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결국 거의 초주검이 되어가는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것이었네.